



'빌리 엘리엇 뮤지컬 라이브'



'테스'



'메멘토'



'피아노'

보고 싶었다, 추억의 영화

'오래된 영화를 만나다.'

40~60대 영화팬들에게 '테스'는 아마도 배우 나스타샤 키스키와 동일시될 듯하다. 1979년 영화 상영 당시 18살이었던 나스타샤 키스키는 타이틀롤을 맡아 순수하면서도 관능적인 테스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아련한 추억이 담겨 있어 한번쯤 대형화면으로 다시 보고 싶었던 작품, 명성은 들었지만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한다. 기존에 아날로그 필름으로 제작된 작품을 디지털 포맷으로 바꾸는 리마스터링 버전이 수입되면서 깨끗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20일 개봉할 '메멘토'(롯데시네마 광주·수완점)는 현재 '인터스텔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00년 작품이다. 아내가 죽은 충격

'인터스텔라' 놀란 감독 작 '메멘토' '테스'·'셀브르의 우산' 등 잇단 상영 '빌리 엘리엇' 뮤지컬 실황 버전도

으로 10분마다 기억을 잃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뛰어난 각본과 연출로 화제를 모았던 지적 스타일이다. 주인공이 메모, 사진, 문신 등을 이용해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메멘토'를 통해 인상을 남긴 놀란 감독은 이후 '배트맨 비긴즈',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인셉션'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22일 광주극장에서 재개봉하는 '테스'(1979)는 토마스 하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쇠락한 귀족 가문 출신의 농촌 처녀 테스가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져 사회적 인습과 편견에 희생 당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지닌 여인의 사랑과 일생을 담아낸 대서사시다. 감각적인 연출로 이름 높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촬영상, 음악상, 의상상을 수상했다.

제인 캠퍼온 감독의 '피아노'도 개봉 대기중이다. 19세기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말을 잃고 피아노로 세상과 소통하

며 살아온 에이다와 그녀의 딸, 새남편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렸다.

에이다역을 맡은 홀리 헌터의 연기가 압권이며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많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199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세계 영화제에서 68개의 상을 수상했다.

'빌리 엘리엇'(2000)은 영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실황을 담은 영화와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27일 먼저 관객을 만나는 '빌리 엘리엇 뮤지컬 라이브'는 지난 9월 28일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열린 오리지널 공연 실황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다.

'라이언 킹'으로 유명한 엘튼 존이 만든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으며 2005년 3월 이후 출연했던 27명의 빌리가

함께 피날레를 장식한다.

'빌리 엘리엇'은 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가난과 역경을 딛고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11살 소년 빌리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다. 제이미 벨이 출연한 원작 영화 역시 개봉을 앞두고 있다.

광주극장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마지막 작품은 '셀브르의 우산'(12월 13일)이다. 카트린 드뇌브의 젊은 시절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영화로 셀부르 우산가게 딸과 자동차 정비공의 사랑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 대사 전체가 상층으로 처리돼 독특한 감동을 전하는 매력적인 뮤지컬 영화다.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국 고전영화 특별전

광주시네마테크, 28일~12월 8일

광주시네마테크는 오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영국 고전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영국영화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네 거장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제다.

상영작은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포드 코폴라, 구로사와 아키라 등 수많은 영화감독들이 사랑한 마이클 파웰 감독의 초기작 '세상의 끝'(1937), 스티븐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속녀 사라지다'(1938)다.

또 '닥터 지바고'의 데이비드 린 감독이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영화화한 '위대한 유산'(1946)과 알베르트 카발칸티의 복수극 '그들은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다'(1947)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윤준성 작 '단상 I'

작품 경향 읽고 교감하고

무들마루 궁다방 이달까지 '감성시대II'전

22일 제37회 예술의 거리 야외경매 행사도

현대미술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젊은 작가들의 예술적 감성과 다양한 작품의 경향을 읽고, 교감하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무들마루가 운영하는 궁다방은 오는 30일까지 '감성시대II'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단비, 박환숙, 윤준성씨가 참여해 시공간과 대상을 통해 인간의 삶, 관계, 행복, 가치를 각자의 화폭에 담은 작품들을 전시한다.

김씨는 우주 만물이 무한한 변화의 소용돌이처럼 흘러갔다 다시 모이는 카오스 공간을 작품에 응용해 공간 구성을 시도하고, 박씨는 아름다운 자

태를 활짝 피워내는 꽃에 자신과 인간의 삶을 대입시켜 객관화하고 다시 그것을 관찰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윤씨는 작은 이파리에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얽혀 있는 잎맥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관계와 삶을 그린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무들마루는 22일 예술의 거리에서 제37회 예술의 거리 야외경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에는 허인석 작가의 '무제' 작품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수공예품, 골동품이 선보인다. 문의 070-7677-92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더 드림 싱어즈' 세계 가곡의 향연

광주문화재단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더 드림 싱어즈'(단장 김혜민·사진)의 '세계 가곡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더드림싱어즈의 연주로 소프라노 김혜민, 바리톤 이광일 등이 세계 각국의 인기 가곡을 독창, 중창 등으로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에선 독일 가곡 '송어', 이탈리아 가곡 '피렌체의 꽃 파는 아가씨', 한국 가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가곡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마당극 전문배우로 활동하며 최근 탐관(탐관서+탐관)으로 변신한 김호준(극단 깎지 대표)씨가 특별출연해 멋진 콜라보레이션 무대



를 선보인다.

한편 지난해 창단된 보컬그룹 '더 드림 싱어즈'는 클래식의 한계를 넘어 오페라, 뮤지컬, 팝페라, CC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좀더 가까이 만나고 있다. 문의 062-670-74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9년

내일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20일 오후 6시30분에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 연회장에서 '지역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길을 만든 지 9년, 소통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재단은 후원 회원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초청해 나눔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김도일 재단 시민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재단 발전의 초석을 닦은 문병란 시인(조선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양명희 시낭송가의 '겨울 들뜬을 거닐며'(허형만 시인) 낭송과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대표 홍운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 2005년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문화재단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원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